# [Project NKIA Brain] AI 조직 신설 및 미션 정의서

## 1. 조직 명칭 제안 (Naming)

단순한 R&D 조직을 넘어 전사적인 혁신(Transformation)을 주도한다는 의지를 담아 다음 명칭을 제안합니다.

### 🥇 제 1안: AX 전략실 (AX Strategy Division) [추천]

* **선정 이유:**
  + 'AI 연구'에 국한되지 않고 \*\*'AI 전환(Transformation)'\*\*이라는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함을 명확히 함.
  + 타 사업본부(영업, 사업, 기술)와 협업 시, 단순 지원 부서가 아닌 **'전략적 이니셔티브'를 가진 리딩 조직**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유리함.

### 🥈 제 2안: AI CoE (AI Center of Excellence)

* **선정 이유:**
  + 전사의 AI 역량을 결집하는 **'중심축(Hub)'** 역할을 강조.
  + 실무를 모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, 각 부서가 AI를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\*\*'가이드 및 인프라 제공자'\*\*의 뉘앙스가 강함.

### 🥉 제 3안: 퓨처인텔리전스실 (Future Intelligence Lab)

* **선정 이유:**
  + '미래 먹거리'와 '지능형 솔루션'을 모두 포괄.
  + AI 기술을 넘어 보안, 자동화 등 신기술 전반을 다루는 유연한 확장성을 가짐.

## 2. 조직 정체성 (Identity)

**"From Lab to Business, From Code to Culture."**

**"우리는 엔키아의 기술적 두뇌이자, 비즈니스 성장의 엔진이다."**

AI 조직은 고립된 연구소가 아닙니다. 우리는 불확실한 AI 기술을 **'확신(Assurance)'** 가능한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고, 엔키아 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\*\*'지속 가능한 성장'\*\*을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.

## 3. 미션 (Mission)

**"AI 기술을 통해 고객에게는 '자율 운영(Autonomous)'의 가치를, 내부 구성원에게는 '업무의 자유(Efficiency)'를 제공하여 엔키아의 LEAP FORWARD를 견인한다."**

## 4. 3대 핵심 전략 (Strategic Pillars)

### ① Product Intelligence (제품의 초지능화)

* **목표:** 경쟁사(브레인즈, 와치텍)와의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한 '격(格)이 다른' AI 기능 탑재.
* **실행 방안:**
  + **Legacy 혁신:** 기존 EMS/ITSM 제품에 단순 통계가 아닌, 예측 및 자동 복구(Self-Healing)가 가능한 AIOps 엔진 공급.
  + **New Security:** 2026년 보안 신제품(SIEM 등)의 핵심 경쟁력인 '지능형 위협 탐지' 및 '자동 대응(SOAR)' 모듈 개발 주도.
  + **역할:** 각 제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차별화 포인트를 설계.

### ② Internal Revolution (내부 혁신 플랫폼화)

* **목표:** 비개발자도 코딩하는 시대에 맞춰, 엔키아 전체를 \*\*'AI-Native 기업'\*\*으로 체질 개선.
* **실행 방안 (AX Hub):**
  + **Dogfooding:** 우리가 개발한 AI 운영 도구를 사내 인프라에 먼저 적용하여 검증.
  + **Enabler:** 모든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, 개발/마케팅/영업 조직이 스스로 쓸 수 있는 \*\*'AI 도구와 파이프라인'\*\*을 제공.
    - *Example:* 개발팀을 위한 '레거시 코드 분석 봇', 영업팀을 위한 '제안서 초안 생성기' 등.
* **역할:** 전사 업무 비효율을 진단하고, 이를 해결할 AI 솔루션을 도입/배포하는 컨트롤 타워.

### ③ Future Growth (신사업 인큐베이팅)

* **목표:** 정체된 모니터링 시장을 넘어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.
* **실행 방안:**
  + 보유 중인 데이터와 AI 역량을 결합하여 빠르게 프로토타입(MVP)을 제작하고 시장성을 검증.
  +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Agile 문화를 선도하며,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아이템은 정식 사업화 추진.

## 5. 일하는 방식 (Working Principles)

**1. Business First (기술보다 가치)**

* 우리는 논문을 쓰기 위해 연구하지 않는다. 고객의 비용을 줄이거나, 회사의 이익을 늘리는 기술에 우선순위를 둔다.

**2. Be an Enabler, Not a Doer (해주는 것이 아니라, 할 수 있게 돕는다)**

* AX의 핵심은 전파다.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, 최첨단 낚싯대(AI Tool)를 만들어 쥐여준다.

**3. Show, Don't Tell (말보다 결과물)**

* 긴 보고서보다 하나의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더 강력하다. 내부 혁신(Dogfooding) 성공 사례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한다.

## 6. 결론 (Commitment)

새롭게 출범하는 \*\*[AX 전략실/AI CoE]\*\*은 엔키아가 직면한 '성장의 정체'와 '기술의 격변'이라는 파도를 넘는 쇄빙선이 되겠습니다.

기존 제품에는 \*\*'생명력'\*\*을 불어넣고, 조직 내부에는 \*\*'효율성'\*\*을 심어, 엔키아가 \*\*"AI 시대에도 책임을 보증하는(Assurance)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"\*\*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.